

MUINE

DMZ의 공중정원

April, 2016

DMZ의 공중정원

“무엇이 두렵습니까! 빛이 있고, 물이 있고, 바람이 부는데요!” 최재은 작가가 제15회 베니스건축비엔날레 아르세날레에 참가한다. 2년 전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공중정원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분단을 상징하는 DMZ가 역설적으로 생태계 보존 지역이 되었다는 사실에 착안, 생명의 힘으로 갈등을 극복하자는 뜻을 담았다. 협업을 수락한 시계루 반은 보행로와 타워를 디자인한다. 공중정원 <夢의庭園/Dreaming of Earth>는 대나무와 천연 재료만 사용, 지면에서 3~6m 떠 있는 13km 거리의 왕복 보행로다.



최재은 Photo: Takagi Yuriko



DMZ 프로젝트 <Dreaming of Earth>